

2015
Diciembre

예배순서

찬양 // 사도신경
기성 // 복음성가 "주 사랑이 나를 숨 쉬게 해", 찬송가 390장 (통 444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말씀 // 목장가독
함심 // 시편 5편 01-12
합심 // 목장리더 / " **도우시는 하나님**"
광배 // 다함께
회 // 찬송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1,4절) - 헌금기도
 // 찬양축제
 // 주의 기도

본문이해

시편 5편은 대표적인 새벽기도입니다.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기서 아침이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면서 아침 동트기 전에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아침에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이 되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사 33:2)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새벽의 신비를 깨달은 신앙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믿음이 새벽에 받은 은혜임을 시편 여러 곳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5절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 88:13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앞에 달하리이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새벽에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술을 마시고 잠들었습니다. 새벽이 잠든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멸하시려고 할 때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새벽에 잠든 도시는 위험합니다. 새벽이 잠든 교회는 성령이 역사 할 수 없습니다. 새벽이 잠든 나라는 이미 영적인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새벽에 주님을 만나는 사람, 새벽 기도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사람은 삶 전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새벽에 무슨 기도를 합니까? 마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합니다. 헤아려는 히브리말로 '빈'(בין)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약간 어려운 단어인데 직관하다, 통찰하다, 알다 분별하다, 대부분 판단력과 관련된 지성의 작용을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통찰해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자기가 가르쳐 자기 마음을 학습하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느낌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직관하고 계신 효과를, 자비의 효과를 자신에게 나타내 보여 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일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가 겪게 될 마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람과의 만남, 일이 터졌을 때의 상황 속에서 마음을 통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저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눈여겨 보시옵소서. 제 마음에 아주 떨림, 많은 출렁거림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혼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외부의 환경을 통해서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심사를 통찰해 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이 모든 고통스런 환경에서 자기를 건져 달라고 하는 경건한 시인의 절실한 탄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경배하는 사람입니다(7-12).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시 5:7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다윗은 상황이 그렇게 평탄하지 못하였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을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였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 복받을 사람입니다.

다윗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시 5:11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히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시 5:12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 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철저하게 경호를 하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안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분명히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호위하여 주셔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만 피하여 안전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벽은 기적의 시간이요, 능력의 시간입니다.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새벽마다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사를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영의 양식은 새벽에 내립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눔

1. 새벽에 기도해 보신적은 있으십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왜 도와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새벽은 아니지만 삶을 맡기면서 기도로 나아가면서 도움을 입었던 경험은 없으신지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2. 왜 시인은 마음을 위해 기도하였습니까?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 앞에 선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속의 답답함과 문제를 이야기 하십시오.
3. 새벽에 기도한 자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다가오는 새해에는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

합심기도

1.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만나주시고 기도해 응답해 주시고, 세상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2.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마음을 지켜주소서.
3. 가정이 사랑으로 더욱 건강하고 화목하게 안전하게 하소서 //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 선교지를 위해

멕시코우리교회 12월 목장예배 찬양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Words and Music by 정신호



주 사랑이-나를숨쉬-게해 - 세상 그어떤-어려-움속-에도 -
주 사랑이-나를이끄-시네 - 내가 갈수없-는그-곳-으로 -



주 은혜로-나를돌보-시며 - 세상 끝날까-지지-켜주-시네 -
주 의사랑-나를불드-시며 - 세상 끝날까-지인-도하-시네 -



주님-만이 - 내아픔아-시며 - 주님 만아내-맘어-루만-지네 -



어느 누구도-나를향-하신 - 주님 의사랑-을끊을수-없네 -



주님-만이 - 내능력이-시며 - 주님 만이나-외구-원이-시네 -



어느 누구도-나를향-하신 - 주님 의사랑-을끊을수-없네 -